

'디카(디지털 카메라)의 유행은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이 시대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다. 사진을 찍고 현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기술, 전시할 공간 등의 문제로 프로그래만 가능했던 '사진찍기'를 일반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 휴대전화와 함께 디카를 휴대한 수백만명의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인터넷에서 그들이 찍은 사진과 함께 정보를 교환하며, 세상을 바꾼다.

# DIGITAL CAMERA (7)

글 : 강중구

## ■ 사진의 최고 피사체 인물사진

"사진은 인물사진으로 시작해 인물사진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사진에서 인물사진은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겠다. 인물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피사체인 모델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감성을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옛날이나 간혹 요즘도 인물 사진을 찍으면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사진을 주로 찍었지만, 이는 재미 없는 사진이 되어버리기 쉽다.

모델의 표정, 손 동작, 분위기, 빛, 카메라의 위치 등 여러요소의 선택에 따라 사진의 느낌이 달라진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자.

먼저 렌즈, 일반 디카는 필름환산 30mm ~ 100mm (3X 광학줌)정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망원일 때 100mm 정도이므로 인물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충분한 화각이다. 광각으로 가서 인물을 촬영해도 상관없으나 광각계열은 피사체에 왜곡이 생겨서 얼굴이 괴상한 형태로 일그러질수 있기때문에 적당하지 않다. 일부러 그러한 왜곡을 주기위해서라면 상관없다.

망원쪽으로 촬영을 하면 좋은 점은 원근감을 표현하기 쉽고 모델과 멀리 떨어져서 촬영이 가능하므로 모델에게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 줄수 있다.



빛의 위치에 따른 인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면,

**1) 쇼트 라이트**

피사체의 좌우측 반대방향에서 비추는 사광으로 코 그림자의 입체감을 높여줍니다.

**2) 램프라이트 라이트**

인물사진에 이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광선입니다.

개성있는 분위기를 묘사하며 볼륨감과 입체감을 강조합니다.



**3) 정면광**

카메라 뒤쪽에서 비추는 광선으로 전체를 밝게 묘사하나 평면적인 빛이므로, 입체감이 부족합니다.

**4) 버터플라이 라이트**

카메라의 위쪽에서 비추는 광선으로 좌우대칭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긴 얼굴형에 적당한 광선입니다.

**5) 스플릿 라이트**

한쪽 측면에서 비추는 측광으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둥근 얼굴형에 알맞습니다.

**6) 라인 라이트**

피사체의 뒤쪽에서 비추는 역광선입니다. 몸의 윤곽선이 뚜렷하고, 머리에 라인라이트가 생깁니다.



이상 6가지의 인물사진에 이용되는 빛의 위치를 알아보았다.